

Twenty Years of 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Sun Kim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한국의학교육학회지 20주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김 선

1989년 한국의학교육학회의 창간호가 출간된 뒤 올해로 딱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학교육학회의 창간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기에 의학교육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의학교육학회장을 지내셨던 백상호 교수는 창간사에서 “이 학술지는 의학교육의 여러 가지 내용물 즉, 연구조사논문, 논단, 보고문, 특별기획물, 각종정보 소개 등을 통하여 앞으로 한국의 의학교육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거대한 기증기의 한 작은 톱니바퀴의 구실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우리 한국의학교육학회지는 역대 학회장님들과 편집위원장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고에 힘입어 의학교육의 교육 및 연구 동향 파악과 그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학교육학회지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는 연 2회,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 3회 발간에 도

전하였고, 2007년부터는 연 4회 발간하게 되면서 한 단계씩 도약해 가며 점차 눈부신 성장을 일궈내기 시작했다.

학회지 발간 초기에는 아직 체계적인 논문게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에 편집위원회는 물론 심사위원의 구성도 요구되지 않았으며, 원고 작성을 위한 대략적인 가이드 역할을 한 간단한 투고규정만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의학교육 학회지의 출간은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의학교육 및 관련 연구 분야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의 노고와 관심에 힘입어 2003년 한국의학교육학회지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A급 학술지로 공식 인정받기에 이른다. 당시 필자는 간행간사의 자격으로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학회지의 심사를 담당했던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당혹해 하면서도 학회지를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발전시킬 것을 굳게 다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결국 학회

Received February 16, 2009 • Accepted: February 20,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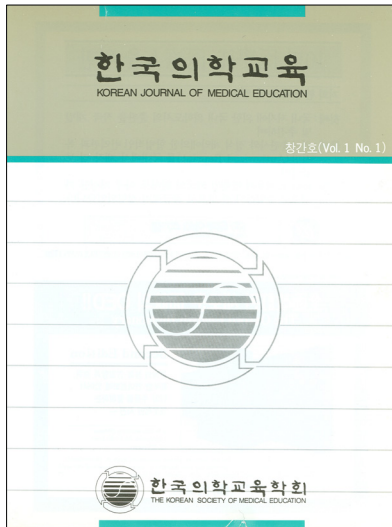
Corresponding Author: Sun Kim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405-2 Banpo-dong, Seocho-gu, Seoul 137-701, Korea
TEL) 02-590-4989 FAX) 02-591-7185 E-mail) skim@catholic.ac.kr

Korean J Med Educ 2009 Mar; 21(1): 1-2.

doi: 10.3946/kjme.2009.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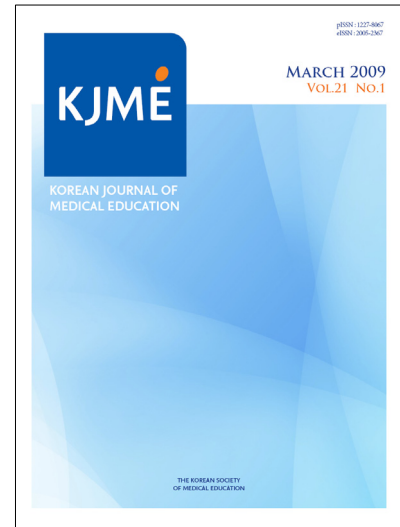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창간호 ~ 2002년



2003 ~ 2008년



2009년 ~

지 출간 첫 번째 심사의 경험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를 위한 초석이 되어 2004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학회지가 되었으며, 드디어 2007년 등재 후보에서 완전 등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창간호에서 2002년 사이, 2003년에서 2008년 사이 우리 학회지는 두 가지 모습으로 학회 회원들과 소통하였고 발간 20주년을 맞이한 2009년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시도하여 새롭게 단장한 표지 디자인과 로고를 포함한 모든 구성이 국제 규격에 부합된 모습으로 학회 회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학회지도 국제 학회지와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게재되는 원고유형 역시 시론, 총설, 원저, 단신, 티칭팁, 북리뷰 등으로 보다 다양해졌으며, 1편의 논문을 3명의 관련 분야 전문 사독위원이 심사를 함으로써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사독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워크숍에 참석하여 일정 프로그램을 수료하여야만 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새로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

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의 전문을 파일로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의학교육학회지는 작지만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학회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동안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행한 결과를 학회지에 게재하는 등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더해 주신 덕분에 이를 수 있었던 성과이다.

우리 학회지의 다음 목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의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명실 공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학술지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SCI 등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이 목표가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우리 한국의학교육학회지가 앞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발전된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가교 역할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의 탄탄한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